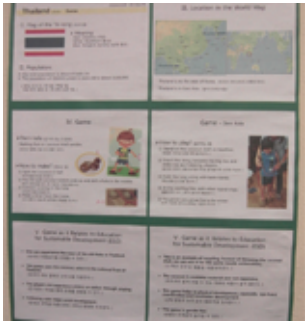


새싹포커지 6월호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포커지 2013년 06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아교육세미나 포스터 전시



6월 7일, 학생식당 2층 첨단 강의실에서 3학년 학생들의 유아교육세미나 포스터 전시가 진행되었다.

6주간 ESD와 다문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성원경 교수님 받은 '유치원에서 ESD 실행'에 대한 포스터, 캐롤린 교수님 받은 자신의 주제

를 조사한 후 ESD와 다문화를 접목해 영어로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하였다.

학생들은 ESD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어 좋았으며 ESD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했다.

캐롤린 교수님께서서는 ESD와 다문화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또한, 학생들이 'effort', 'excellence' 두 단어를 항상 기억하고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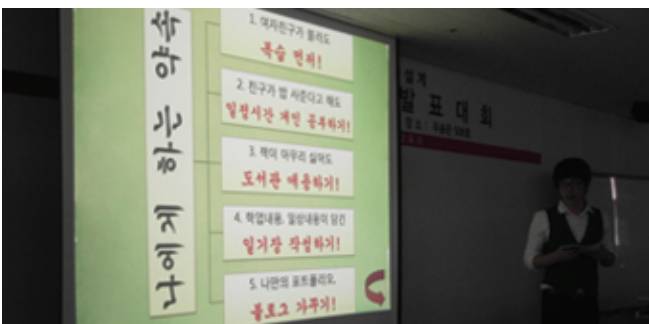
오혜리 학생의 포스터

아동 간호학 특강

6월 20일, 3학년 학생들은 우송관 4층 교수 회의실에서 대전 청사 아람 어린이집 김순란 영양사 선생님의 영유아의 영양관리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해주시고 PPT와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다.

학생들은 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편식하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되어 좋았지만,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 빠른 진행속도에 의해 학생들이 필기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아쉬운 점을 전하기도 했다.

자신의 학업계획서를 발표



자신의 학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있는 이강석 학생

6월 10일, 우송관 506호에서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계획서를 발표하였다.

김유정, 김해니, 나혜련, 이강석, 이은지 학생이 한 조가 되어 유아교육과 대표로 대회를 나가게 되었다. 유아교육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보여주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강석 학생은 자신이 더욱 성장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준비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주셨던 이성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Graduation celebration



To honor the students graduating as of the end of the end of Spring Semester 2013, a simple celebrati

on was held last Friday, June 14th at the Woosong Building Room 506. Everyone watched a special video made by the junior students, ate the cake and listened to our professor's advices. The gift prepared by the Junior students was an eco bag. On the eco bag was written: "Wheresoever you go, go with all your heart". Like this wise saying, the Juniors wished the Seniors to be great teachers and to do their best in all their endeavors.

지혜나눔 프로젝트

6월 6일 58번째 추모



현충일 게양 방법인 조기게양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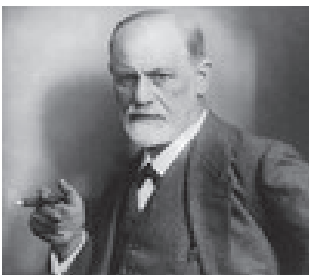
2013년 6월 6일은 제58회 현충일이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혈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과거 우리 선조는 24절기 중 망종(매년 6월 5일 또는 6일)에 제사를 지내왔다. 정부는 6·25전쟁을 상기하고 악귀가 없는 날에 제사를 지냈던 민속 풍습을 고려하여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현충일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을까?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오전 10시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 추념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

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 대전현충원에서도 행사가 열렸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미수습된 6·25 전사자와 그 유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했다.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된 ‘현충일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행사’는 전사자 유해 발굴 사진·유품 전시, 병적기록 조회와 병적상담, 유가족 DNA 시료채취 및 건강검진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광화문, 세종로, 국회 앞 삼거리 등 18개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220여 개 주요 도로에서도 묵념하는 1분 동안 차량을 일시 정지토록 해 묵념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우리는 현충일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민으로서 추념식에 참가하거나 각자 자신의 집에 조기를 다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현장에서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태극기를 그려보고 조기 게양법에 대해 배워본 뒤 현충일에 가족과 함께 달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현충원을 방문하여 묘비 닦는 활동 등을 한다면 국군에 대한 감사와 전쟁의 아픔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주장한 프로이드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원 본능, 자아, 초자아의 발달 때문에 일련의 5단계의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했다. 이 단계 중 약 3세에서 5~6세 정도의 유아가 해당하는 남근기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현상을 거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3~5세 남아가 어머니에 대해 성적 애착을 두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드는 '유아는 아버지가 너무나 월등하므로 적대감뿐만 아니라 거세 불안까지 상상한다'고 했다. 이때 유아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어머니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은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즉, 자신의 사랑의 경쟁자인 아버지의 도덕률과 가치체계를 내면화함으로써 양심과 남성적 역할을 습득하고 자아 이상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

고 거세 불안 대신 남근 선망의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여기에 나온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 사이의 아들인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운명을 타고난다. 왕은 그 운명을 끊고자 오이디푸스를 버린다. 하지만 이웃 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이 주워서 왕자로 자라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청년이 되어 뿌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고 방랑하다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나 죽이게 되는데 그가 라이오스 왕, 즉 그의 아버지였다. 또한, 마침 그때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괴물을 죽이면 왕위와 왕비 자신을 준다는 약속을 듣고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왕위와 왕비를 얻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방랑의 길을 떠나 죽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이론이 너무 유아들의 발달을 성적 욕구인 ‘리비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선이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열등감에 대한 편견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우리들의 이야기

모의 수업 선생님을 한 윤지희 학생을 인터뷰 하다.



모의 수업을 하고 있는 윤지희 학생의 모습이다.

6월 12일 우송관 506호에서 3학년 학생들의 모의 수업 시연회가 열렸다. 선생님의 역할을 맡아 모의 수업을 진행한 윤지희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이번에 모의 수업을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제는 동물이었고, 소주제는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이었어요.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가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되어 “캥거루야 잘했어” 라는 동화로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멀티 동화를 하려고 했지만, 캥거루의 특징을 나타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이블 동화로 변경하였습니다.

Q. 동화가 어떤 내용인가요?

동화 내용은 숲 속에 떨어진 사과를 캥거루가 주워가자 숲 속 친구들이 캥거루를 따라갑니다. 캥거루는 이 사과를 몸이 아픈 너구리 할머니에게 드려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숲 속 친구들이 캥거루를 칭찬하며 끝나는 짧은 내용의 동화입니다.

Q. 다른 모의 수업과 이번 모의 수업 시연과의 차이점이 이 있었나요?

지금까지의 모의 수업은 이야기 나누기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화로 수업을 하다보니 동화를 외워야 하는 점이 힘들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알게 되는 점이 많아져서 상호작용도 자연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쿨렐레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다.



기악 응용으로 우쿨렐레를 배운 학생들은 15시간 이상 수업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3시간의 보수 교육을 통

Q. 반에서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시연회에서 모의수업을 하셨는데 차이점이 존재했나요?

반에는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만 있어서 시연회보다 덜 떨렸죠. 시연회 때는 교수님들도 계셨고 박영정 교수님께서도 일정을 미루고 와주셔서 더 부담되기도 했어요. 또, 순서도 원래 두 번째였는데 사정상 첫 번째로 순서가 바뀌고 다른 반 친구들도 잘해서 시연한다는 생각에 평가받는 느낌도 들어 부담 을 떨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동화 구연을 하면서 떨리는 마음이 사라져서 만족스러운 모의 수업이 었습니다.

Q. 모의 수업을 준비할 때나 시연할 때의 에피소드 좀 알려주세요.

동물의 특징을 살려서 큰 동물은 크게 작은 동물은 작은 크기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등장하는 코끼리 때문에 캥거루의 크기가 작아지면 캥거루의 주머니와 사과가 너무 작아져서 난감했었어요. 시연할 때는 사과가 떨어져서 당황하기도 했어요.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시도해서 모의 수업해보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시켜서 하는 모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받는 느낌인데 자발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스스로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취업하고 수업을 할 때는 유아의 반응에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연습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의 수업 시연회를 떠올리고 준비한 과정을 들으면서 힘들었지만, 만족하신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모의 수업을 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이나 연습을 통하여 더욱 훌륭한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 우쿨렐레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졌다.

6월 21일 대전 중구 문화원 1층 뿌리 홀에서 3학년 학생들 50명이 6시부터 보수교육을 받았다.

예비 교사로서 현장에서 우쿨렐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한국 우쿨렐레 협의회 경남지부장 김효진 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다. 우쿨렐레 자격증을 딴 학생들은 현장에서 유아들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

우송유치원 소식



미술관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다.

6월 만 5세 과란하늘 반의 생활주제가 ‘나와 가족’에서 점점 확장되어 ‘지역사회’로 바뀌었다.

6월 11일 만 5세 과란하늘 반은 하얀 구름 반과 함께 대전 시립 미술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미술관을 다녀온 뒤 과란하늘 반 유아들이 직접 우송 미술관을 꾸미고 전시할 작품들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생들은 우송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



과란하늘 반의 우송 미술관이다.



과란하늘 반 유아들의 미술관 작품이다.

도서관 견학



6월 19일 과란하늘 반과 하얀 구름 반이 가양도서관에 견학을 다녀왔다.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도서관 책 중 집이나 유치원에 없는 책들을 찍는 활동을 하였다.



이전부터 유치원에서 월요일에 책을 대출하고 목요일에 반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이나 유치원에 없는 책들을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할 계획이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조예슬

김유리 김예솔 김지운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